

2003 일곱 번째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기획/ 옷

07호를 여는 글 | 아쟁씨가지 + 수시아

 기획 || 옷

- 01 브래지어 이야기 | drybaby
- 02 Equalizer | 무심
- 03 나는 밀리터리룩이 '신경' 쓰인다 | Dnool
- 04 p양의 스타일을 남겨주세요 | sakana
- 05 흥, 네 옷 따윈 마네킴에게나 줘 버려! | 썸
- 06 인형 옷 입하기. | 살아보자
- 07 웨이드 아웃 | 수시아
- 08 엄마의 옷을 생각하다 | 모래알
- 09 어느 날 생긴 일 | 아쟁씨가지

 고정

- 10 인터뷰 || 고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을 만나다 | 수시아
- 11 만화평 || <어른의 문제> Ichiko IMA | 달토끼
- 12 영화평 || '여섯 개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곱 번째 시선 | 수시아
- 13 서평 || 냉정과 열정 사이 | 코코
- 14 음악 이야기 || 날아가 버릴 지도 몰라 - '뱃뿔 지다'에서의 말로mallo | drybaby
- 15 만화 || 할머니 이야기 - Dnool

 편집후기



멍멍



아생씨가지

글로써 장난을 치는 작가의 '거울과 성교'는 사람의 수를 증식시키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읽고서 나는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질렀다.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지만 '여면' 의미의 다양성 따위 존중하고 싶지 않은 나는 뼈뺀 마음만 가득하다.

선거철이 되면 터져 나오는 학생사회에 대한 고민들과 이제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포획되지도 않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묘한 조합이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여성주의의 권력화를 외치며 학내 단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장할 때는 언제나 비판은 오로지 비난으로 편하게 버리는 황당함(이봐, 같이 운동하지니까), 반성폭력?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오늘도 나는 울고 있는 여자후배를 달래주고), 공정하고 정당한 언론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쥬이쌍스가 언론 맞아?(응, 객관성은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주더라) 그럴 때마다 나는 조그맣게 물어본다.

'대체 내 상식common sense은 어디로?'

상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쥬이쌍스의 문명은 어쩌될 것인가. 새로운 상식을 찾으려면 뭘 일이다. 최소한 잃어버리지 않고 다짐하는 나의 상식들, 쥬이쌍스의 상식들. 감춰지고 숨겨지고 입막을 당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도 미사여구로 맛있게 만들 필요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쥬이쌍스의 틀.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리의 치열함이 텍스트에 살아남아 꼭 그만큼만 읽어주기를.
상식 없는 자들의 무모함이란 그런 것이다. **쥬이쌍스**



수시아

세상은 온통 비주류의 시대라지만 가끔씩은 거리를 걸을 때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뉴스와 신문은 언일 몇 백 만원짜리 명품옷을 사느라 신용불량자가 된 여대생을 친절하게 걱정하고, 여자 연예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옷을 벗는다. 아이는 벌써부터 어른들의 옷을 입으며 그들의 세계를 훑어내고, 여성지는 곧 패션지와 동일한 맥락의 단어로 읽힌다.

옷을 입는 행위를 그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옷이라는 장치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거나 따라잡을 수 없는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도구이거나 사회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전략이다. 당신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입고 있는 것은 사회가 기대하는 평균치의 안일함이다. 대부분의 당신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이번 기획은 옷에 관한 여성들의 이야기다. 오늘날 여성에게 있어 옷은 확실히 달가운 존재만은 아니다.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복시장은 그 배를 불러가고 있고, 사회가 정해놓은 사이즈와 이미지는 여성에게 강요된다. 여성이 옷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각종 폭력들과, 어려운 선택 이후에도 직면해야 하는 '옷을 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은 분명 과거의 코르셋처럼 여성의 허리를 꼭 움아매고 있을 지도 모른다.

drybaby는 낮은 목소리로 브라지어에 대한 이야기를 읊조린다. 무심은 여성이 옷을 선택할 때 암묵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식 선에서의' 옷차림에 대해 써보았다. dnool은 밀리터리룩을 비단 스타일로써가 아닌 전쟁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장치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흥미로운 어투로 이야기한다. sakana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옷차림에 대한 경쾌한 글을 썼다. 짧은 날씬함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일침을 놓는다. 살아보자는 여성들이 옷을 입을 때의 불편함을, 오래알은 당신의 옷에는 신경쓰지 않는 우리의 엄마들에 대해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을 뽁글한 이야기를 썼다. 수시아는 대학 사회 내 존재하는 (옷을 통한) 사회화 공식을 향한 냉소를 늘어놓는다. 아생씨가지는 옷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을 픽션으로 풀어놓았다. **쥬이쌍스**





07호 기획 ... 옷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레이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는데, 문을 열거나 신기하게도 앞치마가 옷 위로 나와서 꼭 걸쳐져 있다는 것이다. 한 번도 벗은 적 없는 그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는 간 볼도 치우고 아가들도 만드셨다.

계모른 달이 산그늘에 얼굴을 빼어들까면, 무릎거리는 줄여를 재빨리 덮어버리는 것가슴 밑으로 앞치마를 집힌 줄여재고는 나머지론 훌쩍 벗은 채로 시냇물에서 피역을 걷는 할머니를 보기가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것가슴을 덮어버리며 지나가고 나면, 할머니지는 나무 밑에서 나와 시내로 달려갔다. 막 빨아진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온 실베늘들이 불타닥해 하얗게 모래로 덮이는 것을 밟고 싶었다. 할머니지가 밟는 자위파다 모래알 눈들이 딱딱 하겠고, 요스려진 모래들이 끈적이는 흙. 오토 변하는 동안 할머니지의 눈매선 피눈물이 났다.

노혜경, 「할머니의 앞치마」, 다



브래지어 이야기

drybaby



-나는 아파
-음?
-안 하면 아프다고

나는 노브라의 장점과 의미에 대해 눈을 반쯤 뜨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브래지어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브래지어를 안 하면 얼마나 출가문하고 편안한지 아느냐고, 브래지어를 안 하는 여자들에게 와 꽃히는 시선은 정말 폭력적이라고, 어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불췌 아파, 라고 말해버렸다. 내 몸에 달려있는 두 개의 둥근 가슴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면 어깨와 가슴 윗 부분이 당겨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였는데, 미국의 어디에선가는 브래지어를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는데, 그걸 알고는 좋아서 극극 웃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버렸다.

그러게, 왜 노브라 예길 꺼냈어. 꽤 오래 전부터, 가슴은 내 결정적인 수처였다. 내 몸과 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슴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내 어깨에 두 개의 무거운 자루를 매달고 다니는 느낌이었다. 가슴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 부풀어오르는 가슴이 부끄럽기도 해서 땅으로 꺼질 것 같은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다녔었다. 달리기 같은 걸 할 땐 운동장 구석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몰래 쳐다보곤 했다. 허한 체육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가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확실히 달리는 것이 보였다. 내 차례가 되면, 난 내 부당스런 가슴이 흔들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달렸다. 그 가슴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지만, 괜찮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브래지어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이는 것이었는데, 딱 맞는 것보다 더 빡게 끈을 졸였다. 그건 답답하고 욕심거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브래지어를 입게 된 이후로, 엄마는 종종 브래지어를 한두 개씩 사왔다. 시장에서 산 시금치나, 콩나물이나, 고등어 사이에 들려있는 조그만 까만 봉지라면 어김없이 그것이였다. 속옷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시장 차판 앞에 주저앉아 이것저것 뒤적이다 샀을 것이 분명한, 아줌마들이나 할 법한 촌스러운 브래지어. 이 브래지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출출 읊으며 내게 브래지어를 건네주곤 했다. 그래봤자 시장에서 산 거잖아, 엄마를 따라간 미용실이나 병원 구석에서 여성들이 따위를 탐독하던 나는 세상에는 예쁜 브래지어가 참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평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역시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다. 티비에 나오는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입는 브래



지어들은 내 사이즈가 없거나, 내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난 그 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속옷 가게 따위에 발을 들일 수 있겠느냐고, 너는 옷가게에도 몇 번이나 가 봤을 텐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검은 봉지를 받아들고, 태그를 떼고, 공공 용처, 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엄마와 나는 홈쇼핑 광고를 몰래리미 보고 있었다. 여성속옷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설 새일이 광고 문구를 나열하는 시끄러운 목소리 사이로 마네킹에 입혀진 속옷들이 마치 갑옷처럼 늠름히 서 있었다. 엄마는 외이어가 들어가고 넓은 띠로 된 브래지어들을 보더니 전화기를 든다. 그리고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 과도할 정도로 많이 쌓여있는 속옷들을 보더니 꼭꼭 전화번호를 눌러 그것들을 덜컥 주문하고 말았다. 엄마, 저것도 내가 입으려고? 엄마는 고덕, 한다. 너는 이런 걸 입어야 그나마 낫지. 저번에 사다 준 거 또 작던데 뭘, 하지만, 그런 브래지어 따위를 입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목욕탕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없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준 브래지어를 하고 목욕탕에 갔을 때 보았던 건, 당연한 듯이 출렁 출렁 옷을 벗는 여자들이었다. 작은 가슴에 달라붙어 있는, 핑크색이나 꽃무늬가 있는, 혹은 새틴된 회색톤의 브래지어를 끌고가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예쁜 여자들이 구부정히 서 있는 여지애를 치고 지나갔다. 옷 좀 빨리 벗으라고 짜증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구석에서 주춤 옷을 벗고 깊이 서린 목욕탕으로 들어가며 뽀얀 억울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

내가 직접 브래지어를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스무 살이 될 때까지도 나는 브래지어를 팔고 있는 속옷가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들어가 보았던 어느 옷가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볼 때까지는 괜찮았다. 점점 차올라서 활랑이는 자괴감 말고는, 진지한 눈빛을 하고 이것저것 들춰보다 다른 곳으로 가곤 하는 우리를 발견한 직원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누가 입으실 거냐고 물었다. 가 날 가리켰을 때 난 혼쫓히고 말았다. 직원은 날 위 아래로 훑어보다 문득 치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여태 내 가슴 치수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나를, 함께 간 나는 직원에게로 데려다 주고 가슴 치수를 재게 했다. 상냥한 웃음을 띤 직원이 내 팔을 들어 올려 가슴치수를 재 때는 온 몸이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었지만 짐작 익숙한 척을 하고 싶었다. 나는 디자인을 보여 이것저것 골라서, 나는 결국 꽤 성공적인 쇼핑을 하게 되었다.



카페 구석에 앉아서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사실 말야, 가 말을 꺼냈다. 그 때는 내 얘기가 아니었어. 나, 사실은 브래지어를 안 하고 다닌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어. 그래서 오늘 안 하고 나왔거든. 처음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꽤 이상해.' 나야, 만 데를 바라보며 씨익 웃는 것 말고는, '근데, 아까 속옷매장 직원들이 훑쳐볼 것 처다보더라' 또 무엇할까, 오늘은 여러 모로 기념해야 할 날이니 비싼 음료수를 시켜보자고 메뉴판을 퍼들었을 뿐이다. **쥬이쌍스**



Equalizer

무심

이미 새터가 얼마나 지겨웠는지 알고 난 후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무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큰 무리 없이, 모두와 친한 그런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는 어떤 차림이 상식적일까를 잠시 생각해야 했다. 뭣 모르고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날따라 힙합바지를 굳이 사 입었다. 어울리진 않지만 편안한, 따뜻하고 큰 신발도. 그래서 1학년 엘티 때 사진에 찍힌 눈사람 같은 내 모습에 만족했다. 그 옆의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게, 마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주위에는 거의 늘 공상을 벌며 술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뿐이었으니, 내가 고구마 장수같이 보인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 누가 맞았겠는가? 소주와 합성과는 별 수 없는 이 지겨운 과 문화를 잘 달래보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기특한 '새내기'들.

제가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꽤 깊이 박혀있었다. 대학을 1년 먼저 들어간 그는 여대와 담을 사이에 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고등학생 티를 아직 못 벗은 '어린' 여자친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다. 모 여대로 들어가는 서문을 자기들은 꽃마차라고 부른다고, 제네는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뱃을 내리 학교에 온다고, 그는 그렇게 '지각없는' 여자 대학생들을 욕했다. 사실 그 친구 역시, 가끔 그 여대를 가로질러 어디를 갈 때 얼마나 쪽팔리는지는 토로하곤 하던 순진한 촌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효과는 녀석의 기대 이상이었다. 확실히, 그 말을 들은 그의 더 순진한 여자친구는, 치마를 입는 대학생은 머리가 비었다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는 것을 배우고는, 대학에 가면 가장 우울한 차림으로 엘리자베스 에인 플랫폼대신 뽕스를 끼고 다니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여간 나한테는 편리한 결정이었다. 어떤 일인지 치마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풀밭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점심모임이 있어 텔레비전 학교에 오는 버스에서 그들은 잔디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을 준비를 하고는 난 자장면을 먹었나 참뽕을 먹었나 물어봤다. 그런 때면, 어찌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가끔 안쓰럽게 다리를 모아 힘들게 자장면을 같이 먹던 신입생이 몇 보이긴 했지만, 뭐 내 일은 아니니까. 그러게 누가 학교에 치마 입고 다니래? 일부는 잔디에 누워 자기도 했다. 그렇지만 힙합바지를 입었다고 다 잔디에 누워 있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한가지 편리한 일은, 버스에서 추행을 당한 황당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때 치마를든지 짧은 옷을 입고 있었으면 분명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웅크려야 하는데다 말했다가는 예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나는 그런 성추행범을 잡아서 어떻게 하기는커녕 말대꾸도 못했지만, 그때는 전혀 안도했다. 사람들은 나의 '상식적인' 차림을 보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해 '줄' 거니까.



나보다도 먼저 힙합바지에 불만을 가진 것은 우습게도 그 '지각 있는' 남자친구였다. 그는 내가 험하고 따뜻한 바지를 입은 채 자기 친구들과 인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니, 그의 고등학교 친구와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끝내 내게 친구의 여자친구보다 예쁘게 입고 나오라는 주문을 했다. 이때쯤 나는 남자들이 모이면 누구의 여자친구가 예쁘더라 하는 얘기를 안주로 삼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심드렁하게 들었다. '그럼 좀 차려 입어볼까?' 그렇지만 그 날 아침 얼굴이 부은 탓에, 아니 예쁘다는 소문을 과다하게 널 자신이 없는 탓에, 그렇다고 대단한 지식을 뽐낼 만한 지지도 아닌 탓에, 나는 그 날 아프다. 고 평계를 대고는 이불을 쓰고 잤다. 누가 맞았겠는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면.

그는 이제 예쁘고 지적인 여자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주원 칭찬대상은 소위 '의녀'들이었다. 의대에 들어갈 만큼 공부 잘 하면서도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녀석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사람들은 남의 맛만 하는 페미니스트와는 다르며, 뛰어난 열심도 하면서도 예쁘다는 것이었다. '오, 그래?'

예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돈이 드는 일인지 녀석이 알고나 있었을까. 알았던 것도 같다. 그는 내가 옷에 낭비를 하고 내일 케어를 받는다고 머리 빈 여자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몰랐던 것도 같다. 그는 지나가는 여자들이 못생겼다고 한탄하고, 내가 예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까. 예뻐지는 데 돈 들고 시간 드는 걸 정말 몰랐으니 낭비를 욕하면서도 미인이 되라는 주문을 했겠지. 하지만 누가 맞았겠는가? 예쁜 여자친구가 좋다는 이 순진한 녀석을.

엄마는 그렇게 힙합바지만 입다가는 나중에 치마를 못 입는다. 고 걱정해주었다. 하, 머리가 비어 보일까 걱정해서 그랬지. 나는 원래 예쁜 옷을 좋아했다.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리고 엄마들이 으레 그렇듯, 나의 엄마도 당신은 못 입으면서도 예쁜 딸 옷을 사는 데는 주저함이 없으셨다.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걸 못 하면 나중에 후회해 뽕자 소용없다고. 그래, 스커트 차림의 여대생 행세는 내 생각에도 20대에만 할 수 있는 멋진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쁘고 공부도 잘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 그걸 실행할 만한 지원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으며 -, 그 다음에는 못난 애인을 차야 할 시기가 이런 계획이 끝난 후여야만 하는지를 잠깐 생각했다(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었으니).

그래서 택한 것은 동대문을 풍미하던 주름치마였다. 그걸 입고 양손에 잔뜩 케익을 든 채 현관을 오르던 날 추행을 당한 얘기를 전화로 엄마에게 할 때, 다짜고짜 엄마가 "너 뭘 입었니?"라고 하던 서운한 기억만 빼면, 그 치마만 보면 손이 떨리던 것만 빼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가 문제였는가? 사랑스런 여자친구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는데, 지하실 추행범은 똑같은 어찌로 막아주겠다는데.

상식적인 차림에 동조하는 것은 우습게 불만만 취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 누가 맞았겠는가? 당신을 따르겠다는데. **류디쌍스**



나는 밀리터리룩이 '신경' 쓰인다

Dnool

A,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은 왠지 카리스마를 뽐낼 생각이네. 옷장을 활짝 열어두고 신경 쓰며 골라보자. 울거니, 저기 카키색 뽀뽀한 놀이 제복이네. 입을 때는 양 날개를 '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딱 뽀뽀했다가 뽀뽀 있게 깎을 마무리하며 차렷. 굵은 스티치의 U.S.ARMY가 가슴팍에서 훈장처럼 빛나고, 실로 훈장처럼 보이는 의미 모를 로고와 작대기 몇 개가 대충 균형을 맞춰 양어깨에 자리잡혀 있다. 이런 상의에는 큰 포켓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얼룩무늬 바지가 어울리겠지. 참, 은빛 군번줄을 잊을 뻔했군. 전신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에 꽤 만족하며 물한 미소를 슬쩍 지어본다.

자, 사들려 학교에 가자. 오늘의 컨셉을 위해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
서둘러서 내리는데 가로막고 유인물을 나눠준다. 받는다. 읽는다.
이.라.크.파.병.반.대.세.계.각.국.반.전.운.동.확.산.
그래, 나도 전쟁은 싫어한다네. 그나저나 지적하겠군. 달라자.

지루했던 수업은 10분 일찍 끝났고, 뽀뽀한 따뜻한 기분 내며 야외에서 동기들과 점심을 먹는다. 이것들이 왜 나의 패션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는지 잠시 조바심 내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결국 한마디 해준다. '멋지네-' '센스 있는데-'

동기들의 시선과 스스로의 의상에 부응한 나의 동작은 어느 때와 다르게 터프하고 절도가 넘친다. 아침에 받은 유인물을 엉덩이에 끈 다음, 양반다리를 넘어서 무릎하나를 세우고 나머지는 90도 각도로 시원스레 벌려 놓는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햇빛 냄새 가득한 바람이 내 앞머리를 사선으로 넘겨주고 떠난다. 완벽한 날씨와 완벽에 가까운 코드. 슬쩍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것도 같다.

A, 밀리터리룩을 좋아하다.

A는 밀리터리룩이 싫지 않다. 차라리 좋아하는 편이다. 딱한 카키색과 아랍의 사막을 달은 색을 좋아하고, 바지 구석구석에 널려있는 무심한 주머니를 좋아하며, 입어도 지장 없는 나뭇잎 달린 손목시계도 좋아한다. 특히, 겨울에는 불투명한 광택에 모자에는 털이 잔뜩 달린 군용잠바를 입어보고 싶다. 그냥 그런 스타일이 좋다. 밀리터리룩의 색, 디자인 요소들, 재질 등이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미가 맘에 든다. 그러나 A의 선호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부족하다. A는 밀리터리룩이 풍기는 분위기, 소위 터프함, 카리스마, 남성미 또는 야성(?)이 따위가 싫지 않고 그것을 입음으로써 A로부터 그 아우라가 발산되길 바라는 것이다. 루이비통이나 버버리를 좋아하는 그/녀가 그 디테일한 디자인과 풍부한 색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1%가 된 것 같은 럭셔리한 기분을 누리고 싶듯이 말이다.



그런데, 요즘 A는 세상에 밀리터리룩이 불편해지고 있다. A가 입는 것도 보는 것도. 스타일리쉬한 A의 밀리터리룩이 깔고 앉았던 반전 유인물이 맘에 걸리고, 단지 기표의 기능만 했던 U.S.ARMY스티치가 기표로 변신한다. A의 머리에선 변명조의 문장이 신호등처럼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옷을 입는 것은 내 자유야. 그야말로 my style-이지. 누가 전쟁 좋아한대? 그저 밀리터리룩일 뿐이라고.'

나, A에게 말한다.

오늘 나는 학생권 앞을 생각 없이 지나다가 유인물 한 장을 받았다. 난 그 김에 어울리지 않게도 A 너와 다른 친구들에게 이라크전쟁이나 파병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세상은 사실 아이규한인거 같은데 가을 하늘에 감동하고 있는 게 잠시 엄치었게 느껴졌었다. A 너는 자장면을 먹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유인물을 터프하게 깔고 앉았고, 나는 너의 박력 넘치는 스타일과 모습에 말을 삼키고 말았다.

그래, A아. 그 옷은 너의 하얀 얼굴에 참 어울리는구나. 네 볼거진 목젓 아래 은빛 군번펜던트가 햇빛에 반사되어 난 잠시 눈이 부셨다. 색시하다고 느낀 것도 같다. 네 생각대로 옷 입는 건 너의 자유. 네 스타일의 표현이지. 그런데 난 가끔 너의 '터프한' 밀리터리룩을 보면 일종의 공포심을 느낀다. 네가 나에게 호전성이 없다는 걸 알아도, 날 바닥에 눌러 총을 겨누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가끔 소름 돋는 피비린내를 느낀다. 네가 하필,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때 맞춰, 적절하게도, 밀리터리룩을 거침없이 입는 바람에 누군가는 널 패션 리더라고 불렀겠지만 난 네가 슬쩍 무서워졌다. 네가 너무 과연하게 반응하는 걸까? 기왕 과민해진 거 더 얘기하자. 난 BB탄이 박혀있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편을 갈라 노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살의를 느낀다. 또, PC방 모니터 속 좀비와 인간인을 가리지 않고 걸기갈기 씌 죽인 뒤 남자한 피를 보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오는 이것이다. 전쟁, 살인, 폭력이 혼란 공기처럼 부유하고 우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한다. 너와 내가 목도하지 않은 핏자국과 전쟁 일련은 밀리터리룩의 얼룩무늬 디자인으로 차용되어 널 세련되게 포장한다. 전율토록 끔찍한 일들이 생활로 변신했다. 사람들은 그 생활을 모르는 척 아는 척 가볍게 취한다. 난 그것이 놀랍고 무서운 거다.

밀리터리룩이 유행한 건 반전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행위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적어도 A 너는 반전의지로 그 옷을 입은 건 아니잖니. 그저 너의 '스타일'이잖니. 네가 착용한 전쟁소품은 전쟁과 상관없는 밀리터리 스타일을 만들고 있을지 몰라도 난 전쟁 이미지로 유도된다. 막연한 전쟁 이미지가 아니라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저쪽의 전쟁과 살육이 곧장 떠오른다. 그 순간, 너는 네가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하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다고 느낀다. 너도 어쩌면 '유사시 발포' 명령에도 복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네가 취한 '스타일'과 크게 다른 걸까?

A아.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무척 과민한 것일 수도 있다. 너는 내게 'Calm down, Calm down-'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나는 너의 밀리터리룩이 신경 쓰인다고, 세상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고 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쥬이핑크**





p양의 스타일을 남겨주세요

sakana



p양은 옷을 사러 갈 때마다 불만스럽다. 꽤나 옛날부터, p양은 '여자 옷'보다 '남자 옷'이 좋았다. 몸에 꼭 맞는 것도 모자라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라인을 그리는 옷이라든지, 레이스가 달렸거나 나폴리라는 천으로 만들어졌다거나 하는 옷들은 아무래도 p양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옷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p양이 자기 인생을 재구성하며 이야기를 들려줬던 무수히 많은 해프닝과 기억과 장면들 중 몇 가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 유치원 다닐 때 계통관찰하고 해서 그 날 아침 p양의 엄마는 어린애한테 치마 저고리 한복 입히고, 심지어 얼굴에 화장을 시켜서 보냈는데 p양은 그게 너무 부끄럽고 불편하고 패로워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유치원을 갔다나. (아, 어릴 적에는 말 잘 듣던 아이였던 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러고 갔다고 한다. 지금의 p양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나 웃기지만 p양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 함께 나눌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 하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아홉 살 때, p양의 엄마는 큰 담 먹고 p양에게 오면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혔었다. 그것은 여객 아래로 동그랗게 부풀, 매우 꽃무늬였던 원피스였다. 어릴 적 나름대로 속 깊었던 p양은 집안 사정이 안 좋은데 엄마가 이래 쟁기는구나, 하면서 그 옷이 너무나 싫어서 죽겠는데도 감싸서 입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역은 고역이었다고 못 박듯이 말했다.

나는 p양을 20살에 만났다. 처음 만난 그녀는 머리가 짧았다. 시원한 커트 머리. 두꺼운 안경. 적당한 풍채의 바지와 혈혈한 셔츠. 내가 보기에 그녀는 예뻐다. 충분히. 신경 쓴 듯, 쓰지 않은 듯 입은 차림새에 빗지 않은 머리는 잘 어울렸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주위 친구들은 그 예에게 가끔씩 너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했고 많은 남자애들이 그 예를 스스럼없는 친구로 대했다. 그 '스스럼없는 친구'라는 것은 무척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다. 뒤통한 여자애. 남자애들에게 '여성성'이 드러나지 않는 '여자애'란 연애 상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같이 아무리 다닌들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친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저 p양을 바라볼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도 같다. 워낙 저리고 다녀서 그렇지 매력적인 연애 때 남자애들은 그걸 모를까, 라거나 제는 남자친구 사할 생각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듬해 봄, p양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머리가 드디어 묶일 무렵, p양은 내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했다. 그 날 p양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도 같다. 나 예인 생겼어, 라며 p양은 살짝 의기양양해했다. 오, 예가 머리 기르고 치마 입더니 이제 드디어, 라고 흥분하고 있었는데 덧붙이는 말에 나는 완전 놀라버렸다. 「근데 있지, 개가 여자애야,」 오 마이 갓. 나도 모르게 말했다. 「어편지, 너 옛날에 그렇게 털털하게 하고 다니지만, 호호,」 p양은 그 때 살짝 웃었던가? 「아,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예인 생김 이후로 굳이 머리 기르고 있는 거 아니냐. 나 예인이 여자야.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쩐지 남자 같더라니, 하는 게 무척 많았어. 그 동안 좀 의심스러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도 웃겨서 내가 치, 머리정도는 길러주지, 라고 생각해지. 그놈의 말도 안 되는 권선들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있지. 기왕 커밍아웃하는 거, 당신들이 멋대로 상상하는, (p양은 이쯤에서 한 마디 쉬었던 것 같다)



그런 게 꼭 레즈비언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주고 싶었던 것도 같아. 사실 실제로 진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거든? 어쨌든. 길거리 다닐 때 부담스럽기도 했고, 내 예인은 소위 '여성스럽다'는 그런 스타일이라 우리 둘이 손이라도 잡고 걸어가면 알만한 사람들 눈에는 딱 그렇게 보일 거라 말이지,」 p양은 툇툇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한 마디를 했다. 「근데 p야, 어쨌든 너 머리 기른 거 잘 어울린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성', '남성성'으로는 도저히 들어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갈린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엔 틀림없는데다가 그렇게 양분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권력 관계들에 대해서 p양은 이미 충분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나도 참 동의했다. 나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스럽다'라는 말에 내가 들어맞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옷 입는 거, 행동하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없애려고 했으니까. 그게 또 덜레마인 것이 옷을 대중 편하게 입고 다니면 여자애가 그게 뭐냐, 하는 소리들을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듣게 되니, 점점 자주 '예쁜 옷'을 입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나도 좋았다. 남자 친구도 좋아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p양도 처음의 나랑 비슷했다. 길으로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더 눈에 띄었지만, p양은 옷에서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라인이나, 치마나, 꽃무늬, 파스텔톤 등이 전혀 자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남자 옷'들이 자기 옷 같다는 것이 맞았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은 마음에 들되 남자 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들을 입어서는 도통 태가 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사실, 무척 실용적인, 납득할 만한 이유도 있었다. p양은 불편한 옷을 못 참는다. 그리고 '여자 옷'들은 보통 편하지는 않다. p양은 브래지어도 하지 않는다. 못한다. 티셔츠를 두 개 입으면 입지. 어쨌거나 이러한 p양의 특성들은 종종 이름 붙여지지 못한 채로 무언가 덜 된 것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에 놓이곤 했다. 그렇지만 p양은 워낙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

p양은 드디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이후, 다른 의미로 주위가 불편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주위에서 여자애가 왜 그러고 다니냐고 얇만 말해도 말하는 인간들을 속할 뿐 별로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로는 으흠,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표정들-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든, 짓지 않든 그저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무척 바뀌어졌다는 동인이 급기야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 p양은 자긋지긋해서 머리를 길렀다고 했다. 그래 그게 작년이었지, 머리라도 기르고, 가끔 치마도 입어주니 편히 당당할 수 있었다나. 「나는 정상적인 여자애예요, 다른 애들이랑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여자애를 좋아할 뿐이에요, 라는 걸 절로숨으로도 표현하고 싶었어.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한테도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예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고,」 p양은 씩씩 웃었다. 「근데, 이제야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딱 내뱉을 수 있게 됐다고 할까. 저기 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퀴어'라고 말한다는 그 심리가 백번 이해가 가는 거야. 퀴어가 이상한, 기묘한, 뭐 그런 뜻이거든? 그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 나 이상해, 그래서 어쩌라구,」

이 이야기들을 몽땅 내게 하게 된 그 날, p양은 나와 함께 머리를 자르러 갔다.

「극복했어,」라며 거울에 비춰본 모습을 흐뭇해했다. 뒤통을 극복했다는 건지 나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좋아 보여서 나도 같이 그저 좋아해줬다. 아 뭐, 그렇다는데. **종이방스**



홍, 네 옷 따윈
마네킹에게나 줘 버려!
봄

그 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더러운 기분이지는 않았다.
아이쇼핑도 즐겁지만, 그동안 버리고 버렸던, 험해 높은 옷을 사러 가는 기분이란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이 신나는 거다. 비록 주머니는 두둑하
지 못 할지언정.

"날씨도 이제 제법 쌀쌀한데, 목둘라 니트를 살까?"
"와, 이번 겨울에는 인디언 핑크가 유행인가 봐. 온통 분홍색 일색인데? 이 니트 좀 봐. 털
실로 엮기실기 짜여진 게 복슬복슬하니 너무 이쁘다."
"짜아, 이 아이보리 털모자랑 목둘라 너무 사랑스러워. 디게 따뜻하겠는데? 한 번 써 봐."

각종 화장품 향이 뒤범벅이 된 1층을 뒤로 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여성의류 매장
으로 올라온 순간, 색색가지의 옷들이 내 눈을 현란하게 한다. 세상에는 어땠 저렇게 예쁜
옷들이 많은지, 저 많은 옷들 다 누가 입으라고 저리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건지, 하
는 '촌년 백화점에 처음 오다'와 같은 생각을 좀 하다가 친구 손에 이끌려 첫 매장으로 들
어갔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 언니 디게 이쁘네. 비쩍 말라가지구서리, 가만, 저 언니가 입고 있는 바지가 지난 번에
봐둔 그 바지 아닌가. 저게 저렇게 작았나.
"바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봐둔 거, 지금 언니가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요. 이진 26.27 밖에 안 나와요. 사이즈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
가신 게 이제 맞으세요?"
어라, 저 옷은 왜, 왜! 달랑 두 종류로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내게
맞는 사이즈보다 작은 것으로만 생산된다고 하니 마치 내가 똥똥해서 저 옷을 입을 수 없는
것만 같았다. 없어서 미안하다는 건지, 그렇게 살 좀 빼지 하면서 비웃는 것인지가 도통 구
분이 안 가는 애매한 웃음을 흘리는 그녀를 뒤로하고 매장을 나섰다. 다른 데 가보자.

"언니, 이 청바지 입어 봐도 돼요?"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도전해 보자. 썩, 허벅지에 걸려서 안 올라간다. 꼭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이 모양이라니나. 이것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슬슬 짜증이 난다. 다른 데
로 가보자.

"저기요, 바지 좀 보여주고 하는데요..."
편걸,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보통 매장에 들어서면 귀찮을 정도로 따라붙게 마련인데, 이
거 요즘 잘 나가요, 하면서. 한 번 더 소리 내어 불러본다.
"저기요."
"손님에게 맞는 건 없을 거예요. 저희 브랜드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영영, 땀새코 말하건대 나는 딱 보기 좋을 정도란 말이야. 실은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지
만, 쇼핑을 할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내게 맞는 옷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서,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가 입어 보았을 때 허벅지에서 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불쾌해지는 기분이 결국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귀결되는 과
정은 비할할 정도인걸. 흑,

"정말 너무하지 않니?"
"우리는 사람도 아니니-"

친구랑 퐁퐁 부은 얼굴로 툼툼대어 보지만, 정작 갖고 싶은 옷을 살 수 없는 게 눈 앞에
벌어진 현실이기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화점 문을 나서는 순간 다이어트를 결심하
게 되는 건 어쩌면 나만 그런 게 아닐지도 몰라. 제길, 근데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이진 내
가 잘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구. 왜 다들 작은 것만 선호하는 거야? 예잇, 더러워.
홍, 네 옷 따윈 마네킹에게나 줘 버려!!

사이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몇몇 기성복 회사의 브랜드 전략은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마른 몸매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주 기만적인 것의 일색이다. 예를 들어,
NIX의 가을 신상품인 슬림한 디자인의 핑크색 데님은 그 사이즈가 27까지 밖에 나오지 않
는다. 그 옷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누군가들은 분명 27이 넘는 자신의 허리를 맞으며 자책
하였을 것이다. 선택되어진 사람들-수치화된 몸의 사이즈에 따라 분류되어진-외의 사람들
은, 자연스럽게, 그 옷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고작 숫자놀음에 불
과한 그 수치들에 심한 소외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축소지향의 인
간이었던 말인가. 상의의 경우 44, 55 사이즈만 나오는 곳도 있다. 대체 그 어느 브랜드에
서 77만을 판매하던가.

문제는 많은 기성복 회사들의 태도가 저러하다는 것이다. EGOIST, VOV, X CHROMOSOME
IN X, 미스 식스티, 오즈세컨 등과 같은 브랜드들은 특정 치수를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브
랜드 이미지를 모던함과 색시함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위 팔다리가 가늘면서 길고, 몸이
마른 여성들을 위한 자사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멋있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현대여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른 몸매, 흔히들 말하는 마네킹 몸
매를 가진 여성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결코 입을 수 없는, 길
고 가늘고 작음을 추구하는 기성복 회사에 의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옷
만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그 선택에서 배제된 그녀들이 스스로를 똥똥하다 여기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 기업의 오만불손한 마인드는 오늘날도 쇼핑을 다녀온 수많은 여성들
을 비참한 기분으로 빠져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이즈의 문제만이 아니다. 각종 매체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 하늘거리는 한 줄 밖에 안 되는 허리, 혹 볼면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함. 그리고
편지 그것이 좋아 보이는 너희와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 이것이 오늘날의 옷에 몸을 맞추
는 여자,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몸에 옷을 맞추게 되는 그 날을 위하여 오늘날도 외친다.

"홍, 네 옷 따윈 마네킹에게나 줘 버려!" **봄이밖스**





인형 옷 입히기.

살아보자

Q양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Q양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자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오늘은 뭘 입지? 일단 머리부터 감아야겠지. 자고 일어났으니 머리는 뻑뻑 뻑뻑 형용사 적을 것이 뻑뻑하니까. 생머리는 너무 불편해. 한 가닥만 뻑뻑하와도 다시 머리를 감고 드라이 해야 하잖아. 드라이.. 에.. 뭘 아픈데. 이번 기회에 파마를 해버릴까? 아냐. 파마는 너무 머리가 많이 상해. 귀찮은데 감지 말고 그냥 묶어버릴까? 아냐아냐. 그래도 길게 푼 머리가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예쁘잖아? 삼루 냄새가 은은히 나는 것이 뭘 냄새보다는 낫겠지.

그나저나 무엇을 입을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트레이닝복? 얼마 전에 산 트레이닝복은 선도 잘 뻑뻑하고 예쁘니까 그냥 입고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편하고, 걸을 때마다 엉덩이선과 다리선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색시할 텐데... 너무 아한가? 아 참. 아침이잖아. 얼굴도 부었을 텐데 트레이닝복까지 입으면 폐인같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치마 정장? 입으려면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데... 출지 않을까. 정장에 양말 신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집에 있는 스타킹 중에 안 나간 것 찾아내는 것도 일인데.. 또 의자에 앉을 때마다 부스럼기에 걸릴까봐 신경 쓰이잖아. 자꾸 내려가는 것도 짜증나고. 화장실에 가서 그 때 그 때 올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혹시나 나가거나 해봐.. 검은 정장이라 검은 스타킹을 신어야 되는데 얼마나 칠칠치 못해 보일까. 살색으로 신을까? 내 다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간 걸 쉽게 눈치 채진 못할 테니,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아냐 아냐 요즘 날씨엔 너무 추워 보일거야. 잠깐잠깐 정장을 입는게 너무 나이들어 보이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까? 그래도 입으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뽀뽀 풀워있어 보이잖아. 확실히 불편하긴 하지. 모양 내려면 무릎도 꼬옥 붙여 앉아야 하고 걸음도 조심 조심 해야 하고 허리도 곳곳이 새우고 있어야 하고. 음.. 귀찮이는 큐빅이 박힌 것으로 하고, 목걸이도 반짝이는 펜던트가 좋겠지. 검은 옷에 반짝반짝. 얼마나 예쁜까?

아냐..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짧은 치마에 가죽 자켓을 입을까? 안에는 터틀넥 스웨터를 입는 거야. 귀걸이는 가늘고 커다란 링을 하고. 너무 아하거나 불쌍스럽게 보일까? 가죽은 잘 입으면 고급스럽지만 잘못 입으면 정말 불쌍스러워 보이잖아. 터틀넥은 따뜻하긴 한데 너무 목이 답답해. 스웨터가 좀 두꺼우니까 자켓 안에 입으면 답답하리나? 그건 정말 싫은데. 치마가 짧으면 시선을 많이 받을 텐데. 남자들이 많이 쳐다볼거야. 뭐.. 예쁘게 보인다면야 나쁜건 아니지.. 그런데 혹시 다리도 안 예쁜 게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욕하진 않을까? 에..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는 사람도 아난데. 아 그러면 롱부츠를 신으면 되잖아. 위에 가죽 자켓이랑도 잘 어울릴거야. 롱부츠는 너무 다리가 짧아보이려나? 예휴.. 딱 5cm 만 더 컷으면 좋으련만. 그럼 얼마나 멋질까? 롱부츠를 신을까 말까 따위론 고민하지 않을 텐데. 청바지를 입어도 멋있고.



가만가만. 그냥 청바지에 가볍게 입고 나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잖아. 그런데 어떤 청바지를 입지? 뿔어진 건... 멋있긴 한데 출졌지? 좀 불쌍스럽게 보일 지도 모르겠는데. 모자랑 같이 쓰면 멋있지 않을까? 아냐아냐. 모자는 한 번 쓰면 계속 쓰고 있어야 하잖아. 중간에 벗으면 머리가 놀려 버린다고. 그럼/막 붙는 슬림한 청바지? 그건 너무 붙어. 똥꼬에 찰릴까 걱정도 좀 되고. 흠.. 나팔바지는 어때? 나팔바지는 높은 구두를 신어야 되잖아. 바지길이에 다리를 맞춰야지, 다리에 바지를 맞추는 순 없으니. 나팔은 자르면 모양 정말 이상해지니까. 그냥 낮은 구두나 운동화 신고 조금 길게 늘어뜨린 채 슬림슬림 입으면 정말 다리 짧아보일 거야. 그러고보니 어렸을 때 산 바지들은 죄다 못 입겠다고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험하고 큰 것들만 샀을까. 좀 붙는 게 똥꼬도 드러나고 예쁜데.

그냥 면바지에 대충 입고 나갈까? 아냐. 그건 너무 성의가 없어보이지

Q양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다.

옷 입기는 외출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큰 언덕이었다. 가장 큰 언덕. **쥬이뱅크**

뭘 입지



〈부록 : 21세기 최고의 섹시녀가 되는 법〉

얼굴 :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피부는 필수조건이다. 당성여 피부가 연 좋다면, 부끄러움 줄 떨어져 한다. 당성 피부과나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라. 외출을 할 때, 가벼운 화장 정도는 하자. 하지만 너무 진하지는 않게. 피부에 자살이 걸리면 화장으로도 커버하러.

내 : 항상 내에 힘을 주고 있어라. 특히 뱀을 먹은 후에는 필수,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 걸으면 똥배가 나온 것에 드러난다. 내에 힘을 주고 한창 걸으면 내가 술을 여파할지도 모른다. 볼록 나온 배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당성여 여자이다. 항상 예쁘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가슴 : 가슴에 작은 사람은 꼭 뽕뽕이를 달 것. 만약 가슴 부분이 옷에 낄에서 옷 때가 나지 않는다. 명성여라. 여자의 가슴은 가장 사설에 많이 모여는 곳 중 하나이다. 당성하고 볼록 해도 참아라. 당성여 아름다운 가슴에 꽃머는 남자들과 사설이 보여지 않는가?

구두 : 낮은 구두보다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선이 더 섹시해 보인다. 물론 걸어가 불편해서 자주 팔자걸음을 걸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파나는 연술 밖에 길어 없다.

* 주) 단지 예쁜 것을 좋아해서 예쁘게 입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예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왜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혹여내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아웃

수시아

그녀의 옷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수많은 옷들, 그녀의 집에 방문해서 직접 열어보지 않더라도 나는 그녀를 보기만 해도 그 옷장의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다.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녀처럼 옷장 속에는 각 분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든지, 혹은 아예 코디가 되어 있는 자체로 걸려 있을지도 모르지. 브랜드를 고집하는 그녀의 평소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브랜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졸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어느 필수 교양 시간이었다.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교수의 시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창밖이나 보며 유유자적한 수업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나는, 당시 친했던 과 동기와 교실 맨 뒤에 앉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의가 시작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고, 곧 하나 둘씩 강의실에 사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막 고등학교를 벗어난 티가 보란 듯이 흐르는 아이들. 길어진 머리가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그러나 누가 봐도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잘 자란 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 남자 아이와 그 뒤를 따라 수수한 옷차림의 화장기 없는 여자 아이가 자리에 앉았다. 모든 점에서 눈에 확 띄는 남자 아이에 비해 여자 아이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겉모습 저편의 그녀를 보며 그녀에 대해 상상을 했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고 나서야 진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헤치기 않은 사람. 오랜 시간 뒤편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역시당초 칠판을 잘 보아지도 않기 때문에 창 밖을 보거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일이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풋풋함 그대로 늘 생기가 돌아 보이던 그녀는 정반대의 성격인 나에게 묘한 이질감과 한편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을 안겼다. 그녀라면 구질구질한 대학 생활도 생명이 있게 꾸러나갈 것만 같았다. 열 다섯에 이미 세상을 알아버렸다고 당차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솔직히 고백해서 그녀가 좋아 보였다. 세련되지 않은 말습어.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눈매가 너무 좋았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온 대기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3월, 영원히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끔찍한 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다. 너무도 미묘한 변화여서 대변에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나는 그녀의 첫인상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어서 대조하기가 나름대로 수월했다. 베이지색의 책가방이 브랜드 로고가 매우 폭력적으로 박혀 있는 빨간색 하트 모양의 핸드백으로 변했고, 약간 굵슬거리던 그녀의 천연 머리는 시대를 풍미하던 매직 스트레이트의 영향 아래 찰랑거리는 생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옷차림에서였다.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렸던 그녀의 미소는 점차 소위 '규격화된' 스타일로 빛을 잃어갔다.

그녀는 인문대학, 그것도 서양어문계열 학과의 학생이었다. 하루키 소설이랄지 많은 소설에 항상 미인이 많은 학과로 등장하는 바로 그. 그녀의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이 났었고 한국 대학 사회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비싼 옷을 자주 입는다는 것과 맥락상 같은 말이다. 그들의 취향은 우연인지 한결같이 동일했다. 남자들은 죄다 큰 자전거 혹은 말이 그려져 있는 옷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고, 여자들은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장식된 가방을 하나같이 등에 메고 다녔다. 입학 초기에 나름의 멋을 부린답시고 옷장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을 것이 분명한 그녀/그녀들은 이젠 더 이상 오랜 시간을 옷을 고르는 데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공식은 주어져 있고 해야 할 일이란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일이다.

단지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 마인드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커피숍에서 케이크를 깨끗한 재떨이에 담아 손님에게 내어주고선 아무런 리액션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해프지 않다고 생각했던 미소의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져버린 그녀의 옷처럼 조금씩 못사람들과 비슷한 말투에 비슷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란 참으로 기이했다.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생머리에, 예의 그 검은색 혹은 같은 상의의 빨간색 가방을 메고, 가장 단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를 입은 그녀들. 내가 기억하던 당당한 목소리의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아마 같은 높이의 목소리를 냈다면, 그녀가 입고 있던 그 하늘하늘한 옷의 데시벨(db) 수치에 훨씬 웃돌아 굵다 고운 옷자락이 스스로 파열했을 지도 모른다. 그걸 염려했던 건지 어느새 그녀의 말투는 소위 '여자다운'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스커트를 즐겨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층 정돈되었고, 나는 곧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 버렸다.



그녀는 아마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보낸 1학기 동안 바로 그 공식을 찾았던 것 같다. 그리고 공식대로 행하는 일이라말로 그들 사회에 적응하는 일종의 관례였을 것이다.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그 가방을 그녀 역시 구입해야 했을 테고,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았던 명품 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했을 테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그녀를 사회화하는 그 사회의 기형적인 구조 탓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비단 고등학교의 유예기간일 뿐만 아니라 압축이 '교실이데아'라는 노랫가사 속에 등장하는 '포장공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한 것은 그 포장지가 (적어도 외적인 면에서 본다면) 모두 획일적이라는 데 있다. 정형화된 패션 취향과 또 그 취향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대학 사회내 분위기는 과연 대학에서 개성이 실재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함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자발적 담임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엄습한다.

조금씩 내려져 간 그녀의 빛. 옷이라는 두꺼운 피부를 뒤집어쓰면서 알아차릴 수 없게 된 그녀의 얼굴. 우리는 아마 향후 몇 년간은 비슷한 그녀들과 비슷한 그녀들을 몇 번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쥬이쌍스**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엄마의 옷을 생각하다

모래알



엄마는 또 딸을 불렀다. 아직 잠도 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의 옷을 평가해주시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며 딸은 부스스 일어나다. 한참이나 눈을 비비고 난 후, 안경을 쓰고 엄마를 본다.

- * 오늘 날씨는 별로 안 춥다니까, 그 조끼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 * 그럴까? 그래도, 조끼 안 입으면 엄마 배가 다 보이잖니.
- * 겹옷 벗고 있을 거 아니잖아. 편찮아, 편찮아. 썩 입고 다니면 더 뚱뚱해 보여.

공시영 공시영 몇 마디가 오고 간 후, 그녀들은 일종의 타협을 모색한다. 조끼를 입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좀 더 험정한 옷으로 셔츠를 갈아입었다. 엄마의 선택 기준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덜 뚱뚱해 보일까, 겹치는 땀살과 브래지어 때문에 약간씩 나오는 등과 팔 아래의 살을 감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해도 늘 가릴 수 있는 조끼를 입거나, 험정한 옷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엄마가 옷을 입을 때면 딸과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딸은 좀 더 편하게 옷을 입도록 강조하고, 엄마는 가리고 싶어하고, 물론 딸의 '패션감각' 혹은 '센스'를 자신의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엄마 덕에 딸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늘 잘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의 옷 문제는 기본적으로 옷이 몇 가지 없다는 데 있다. 조끼 두 세 개, 티셔츠 세 네 개, 바지도 세 네 개, 백화점 정기 세일이나 행사 시즌에도 항상 아빠 옷을 챙기거나 딸과 아들의 옷을 사오려는 엄마에게 엄마 옷이나 좀 사라고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사실 이들의 집에서 옷이 가장 적은 사람은 엄마이고, 그 다음은 아빠인데, 아빠는 뭐 양복 몇 벌로 외출을 해결하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엄마는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옷이 없는 것이다. 엄마도 나름의 사회 생활을 위해,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면 같은 옷을 입기 민망한 거고, 슈퍼에 가더라도 아는 아줌마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건데, 입을 옷이 없으니, 대형 할인 마트나 아울렛 매장에 갈 때 한 두 개 사는 옷 가지고는 엄마의 나이에 어울리는 적당한 코디를 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딸이 사라는 옷 좀 말먹고 살 것이지, 자기 옷 사는데 만큼은 간이 유달리 작은 엄마의 결심을 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댄탈 옷 없다는 타령이나 하지 말던가. 매일 아침 딸에게 '아유, 입을 옷이 이렇게 없니' 하며 한숨을 쉬면서도, 옷을 사러 갈 때면 늘 편찮다고 빼는 이유는 뉘난 딸이다. 엄마도 이제 엄마의 권리를 찾을 때다. 아들이 20만원짜리 농구화를 산다고 할 때는 선뜻 카드를 긁으면서, 자신의 10만원 짜리 옷을 고를 때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



서는 이 자기 모순적인 행동, 사실 동생은 20만원짜리 사서 1년도 안 신졌지만, 엄마는 10만원 짜리를 사면 적어도 5년은 입을 거란 말이다. 경제적으로 따져 볼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닐뿐더러, 사치와 허영, 과소비와도 거리가 멀다고 딸은 부딪거린다. 동생 농구화 따위에 비하면 매우 적당한 가격이지. 요즘 아줌마들 옷이 얼마나 비싼데, 백화점 '미씨' 혹은 '숙녀'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웬만한 브랜드에는 여섯 자리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진 가격표가 뽀하니 붙어 있다.

엄마의 옷을 사는 때는 이것 말고도 사이즈의 문제도 걸리긴 한다. 먹을 걸 워낙에 좋아 하는 터라, 엄마는 넉넉하게 나오는 브랜드의 77, 보통은 88의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브랜드란 66도 통통하다는 이상한 인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77은 간혹 가다 찾아볼 수 있지만 88은 정말 숙녀 전문 매장에 가서야 찾을 수 있고, 행사매장이나 세일 기간에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엄마는 팔처럼 행사 매장에서 삼만원 이하의 옷으로 모든 옷을 골라 살 수가 없는 노릇이고, 원하는 디자인과 사이즈를 모두 갖춘 옷이란 더더욱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엄마는 옷을 살 때 많이 부끄러워한다. 딸이 옆에서 이런 옷 예쁘네, 하며 추천해줘도, 얼마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을 거라며 외면하기가 일쑤고, 간혹 옷을 입어보더라도 '내가 좀 살이 썩서' 하며 정원에서 변명하듯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정원들은 '그 나이 되시면 다 그렇죠' 하면서 편찮다고 말하지만, 가끔씩 알미온 정원들은 '저희

행사할 때는 큰 사이즈 안 나오거든요' 하면서 무안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돈 많은 복부인 물이야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썩도 비싼 옷 맘대로 사 입을 수 있으니 상관없지만, 엄마는 그럴 행편이 안 된다. 가끔 77이 맞는 브랜드를 발견하여 어쩌다 한 번 옷을 사는 날에, 엄마는 기분이 매우 매우 좋아진다. 그것은 66을 입는 딸이 55가 맞는 브랜드에서 치마를 산 날의 기쁨보다 더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 백화점 정기 세일에서도, 엄마는 한 벌의 옷도 사지 않은 채 아들의 옷만 잔뜩 사 들고 돌아왔다. 어름같은 아들은 뭐가 신났는지 난리 법석이지만, 딸은 또 한 구석에서 팔방을 끼고 엄마에게 한 마디 했다.



"엄마, 엄마 옷이나 좀 사. 언제까지 그러고 다니려고 그래. 엄마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할 때, 이제 엄마를 위해 카드를 긁을 때가. 제 옷은 이제 그만 사도 된다고. 옷장이 넘쳐요 아주. 엄마 옷장이니 좀 멋있게 채워, 응?"

이렇게 말하면, 종종 엄마는 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서운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는 자기 옷 한 벌 사는 데 일 년이 걸리는 생활을 반복할 테니까. 날 원망해도 할 수 없어, 딸은 때를차게 반복해서 말한다.

"엄마, 엄마 옷을 좀 생각하면서 살시다. 응?" **쥬이 쌤**



어느 날 생긴 일

야생사가자



'흔들릴 바에는 부서지렴.' - 사쿠라와 리.

'아앗! 이걸 어째!'

날선 여자의 파란 치마를 적시는 끈적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의 흔적에 소녀는 눈물을 흘려댔다. 반쯤은 엄마를 위해서 반쯤은 자신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소녀의 엄마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소녀를 쏘아보았고 그녀의 작은 동생은 사뭇 고소하단 듯 웃고만 있었다. '이거 비싼 옷인데, 이걸 어째, 내 옷도 아닌데...' 소녀의 초콜릿이 묻어 있는 치마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철이 없어서... 이걸로 세탁비라도 하세요.' 소녀의 엄마는 속상하기 이를 때 없어 한 대 휘어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소녀는 그런 엄마를 피하기 위해 이미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고 있다.

'그만 좀 울어!, 차라리 울고 싶은 건 나라구!'

사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다. 백화점을 지나치며 즐겨보던 파란색 린넨 치마가 그 이유였다. 한 달 전 학원에 간 아이들을 기다리며 백화점을 기웃거리던 그녀는 숙녀복 코너로 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이 있나요?' 나긋나긋하고 다정한 아가씨들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들의 입에서는 꽃잎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은 어느 한 쇼에 걸린 파란색 린넨 치마에 머물렀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눈에 든 건 코가 크고 희백색 피부를 가진 마네킹이 입은 치마가 아니라 그 쇼를 지키고 있던 아가씨가 입고 있던 치마였다. 순간 그녀의 머리 속에는 이 마르고 창백한 점원의 물어 올린 머리와 치마는 바나나와 망고 버터 이후에 가장 기가 막히는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매장의 어느 아가씨들처럼 고운 미소를 흘리며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루해 보였다. 손톱을 갈며 쇼를 지키고 있는 파란 린넨 치마의 아가씨를 주인이 급게 좌중 리는 만무했다. '애, 넌 장사를 할 마음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쇼 매니저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녀의 무료한 권태를 끊을 때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 미소를 띄웠다. 그것도 잠시 손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금방 자리에 앉아 다시 손톱을 다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소녀의 엄마는 백화점에 갈 때마다 라벤더 향기를 뿌려대며 그녀에게 눈길을 보내는 점원을 찾게 되었다. 쇼 매니저는 여전히 앙칼진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대고 그녀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일어나 미소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파란색 린넨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엄마는 그 파란색 린넨 치마를 꼭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돈을 다 모았다. 사실 돈은 이미 예전부터 모아져 있었지만 문제는 파란색 린넨 치마는 긴 허리를 가지고 말끔히 물어 올린 라벤더 향이 나는 여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옷이란 것이었다. 항상 손톱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는.



그래서 아까부터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오늘은 유치원과 탁아소가 쉬는 날이라,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이 태달려 있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녀는 먼저 아동복 코너에 가서 아이들에게 원피스 한 벌씩을 사 입혔다. 아이들은 금방머리에 파란 유리 눈동자를 가진 공주들이나 입을 벌린 옷을 입고 한껏 기분을 냈다. 그러던 중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었고 그 결과 그녀는 울고 싶은 기분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다. '울지 마, 제발, 오늘은 울지 말아주렴.' 엄마의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챈 아이는 더욱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난 알아요, 사람들이 왜 이런 옷 따위를 입고 돌아다니는 지 알 수 없답니다.''

그녀의 불연 소리에 매장에 걸린 옷들이 활랑하고 흔들렸다. 그런 그녀를 보며 세련된 입술을 가진 쇼 매니저는 빨간 입술을 동그렇게 으르었다.

'어머, 그런 말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살라고? 그런 소리 말고 일어나 해, 일! 그래야 예쁜 옷도 사지.' '언니두 참.'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튀지 않는 루즈가 발려진 입술들이 벌어진다.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백화점 3층의 숙녀복 코너였다.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자수성가한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였다. 제법 손님이 있는 편이어서 백화점 의류 코너에서도 유리로 독립된 쇼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게에 근무하는 사람은 4명, 쇼 매니저와 손님이 왔을 때 옷을 파는 아가씨 2명, 창고에서 옷을 가져 오거나 잡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 7평 남짓한 공간에서 4사람이 일하기에는 너무 넓은 장소였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적당히 옷을 파는 셋째의 역할이었다. 여차피 비정규직에 취업도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의 뺨으로 들어간 자리였으므로 애정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고객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복창하고 난 뒤 의자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 정도 게으르면 당장 쫓길 만도 한데, 그녀의 길다란 몸과 조그만 얼굴 탓에 그녀를 보고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녀를 살렸다.

'이상하기도 하지, 전부 같은 옷인데 말이야.'

매장 가득히 걸려 있는 옷들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이건 우리 브랜드만의 고유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디자이너는 죽을 때까지 하나의 무늬로 돈을 벌어들이고 사모님



들은 '난 xx 브랜드만 입어'라면서 사사사철 무늬 하나 바뀌지 않고 천 길어만 바뀌는 옷들을 잘도 사갔다. '어머, 고객님은 이런 선이...(오아, 거기 터질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런 치수는 안 맞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집 옷은 언니가 입어야 해.(언제 봤다고 언니는 언니야. 아줌마, 사실은 하나도 안 어울려요. 참내)'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은 다시 또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입고 브랜드는 이름을 만들고. 그녀는 꽤나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배알이 풀리는 게지. 이 옷 하나가 내 한 달 월급이랑 맞먹는단 말야? 니가 날 먹여 살리는구나. 그녀는 싱긋 웃으며 뼈뺀하게 걸린 가디건을 바로 걸어주었다.

점심시간이 된 그녀는 숲 밖내와 함께 7층 식당가로 갔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 계속해서 서있으면서 옷어야 되는 일이라, 여간 중노동이 아니었다. 불고기 덮밥을 시켜놓고 그녀는 한 병 가득 담긴 물을 꿀꺽꿀꺽 삼켜냈다.



'아, 옥달라서 죽을 뻔했어.'

'언니, 조심해요. 그거 매장 옷이잖아. 버리면 어떡하러구.'

'어떻게 하긴. 그냥 시면되지. 그나마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일하면서 옷 하나 못살라고. 흥, 이 옷 분명히 우리 브랜드 디자이너가 만든 거 아닐까. 그 일에 새겨 디자이너가 죽도록 만들었던 거 자기 이름 딱 하나 걸고 내놓는 거지 뭐. 색깔이 다르잖아. 이 파란색 린넨이 어디 우리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색이냐? 자기 작품 빼앗긴 예만 억울한 거지. 뭐냐구 뭐. 왜 어저웃 만드는데 남자들만 다굴디굴 이름거 나구. 원래 옷 만들고, 옷 파는 건 우리 같은 젊은 여자들이나 하지. 더럽다 흥.'

'언니는 별걸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체미니스트 소리 꽤나 들었잖아. 밥이나 먹어요. 배고프다.'

손가락을 들어서 불고기 덮밥을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고기 덮밥은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든 아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돌진해왔다. 그리고는 '앗! 안돼!'하는 그녀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의 파란색 린넨 치마는 온통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범벅이 되었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 하필이면 그 아가씨의 치마에 그런 짓을 할 건 뭐람.'

집에 돌아온 그녀의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묵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는 이 옷 저 옷을 꺼내 몸에 대어보고는 아이를 2명이나 낳았지만 자신의 몸매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옷 어때?'

'자기는 아무 거나 입어도 어울려.'

하루종일 상사의 짜증을 받으며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드러누워 심드렁하게 대사를 읊조리는 남편에게서는 이미 그녀가 바라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 또래의 어떤 것들이 그렇듯이 심하게 싸웠다. 하다가 울기 시작하면 또 하나도 울기 시작했다. 밀린 설거지와 저녁으로 먹은 시큼한 생선 비린내, 아이들의 울음이 한데 뭉쳐서 돌아가는 이 집의 숨막히는 공기에 그녀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고 어딘가 라벤더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았다. 티비에서는 파소비로 자살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티비는 그녀의 옷이 얼마짜리였는지를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재경부 장관이 여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지를 코멘트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고 남편은 이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불현듯 물에 젖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머리를 틀어 올린 아가씨의 길다란 손가락과 손톱을 다듬는 칼. 그녀의 파란색 린넨 치마가 또다시 생각났다. 그걸 사야 했는데... **쥬디핑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을 만나다

정리 - 수시아

여자를 셋이 모이면 유리창이 깨진다? 여자들의 수다가 시끄러운데다가 같이 없음을 힐난하는 듯한 이 말은 사실 조금도 틀리지 않다. 여자를 셋이 모이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데 걸리적거리는 유리창을 뚫 수 있을뿐더러 매체도 만들 수 있다. 자신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여자들은 매체를 만들고 유리창을 뚫는다. 이번 줌이앙스 7호에서는 줌이앙스의 친구 '석순(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을 초대했다. 바른 서로의 일정에 하필없이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아울러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석순에게도 감사사를 전한다. 여자들의 수다여 영원하라.

줌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해주시는 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석순: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의 편집장 니나라고 해요. 반가워요.

줌이: 석순이란 이름은 귀에 잘 들어오는 예쁜 이름이면서도 막상 뜻은 잘 모르겠어요. 석순이란 이름의 뜻과 석순이 어떤 매체인지 설명해주세요.

석순: 석순은 울해로 스무 살을 맞은 여성주의 교지입니다. 그리고 '석순'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石菴이라고 쓰구요. 돌꽃, 돌에서 피어나는 새순 그런 뜻이에요. 돌은 좁게는 고려대학교, 넓게는 세상까지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힘들게 자생하는 '순'이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말 같군요. 스무 해도 전에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줌이: 벌써 석순이 스무 살이나 되었군요. 줌이앙스는 이제야 두 살인데. (웃음) 그렇다면 석순은 정확히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석순: 석순은 1982년 9월에 여학생 공개 토론회에서 여학생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83년 5월에 탄생했어요.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회지'의 형식으로 출발했고, 당시 '여학생, 여학생회지'라는 좌담회 정리글을 보면, '숫자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참여할 공감의 장을 갖지 못해 서로를 확인하고 인사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여학생, 이제 여학생 회지로써 첫 출발을 하려 한다.(하략)'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십년이라는 까마득한 거리에도, 학교에서 여성의 소수자적 위치와 그에 따른 소외는 여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줌이: 현재 석순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석순: 석순은 교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지대금으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 언론들(그 중 하나를 꼭 뽑아 '줌이앙스' - 편집자 주)에 비해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 학우의 교지대금'이라는 것은 석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본 세상을 전학우를 대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 그 대상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여남대학생이라는 것, 그것은 석순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당연히 여성주의적 시각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없는 것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갖춰야 할 '성실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구요. 학우들의 소중한 돈을 그 이상의 가치를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순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여성주의적 활동도 하며 석순을 만듭니다.

줌이: 인정된 재정책이라는 것은 줌이앙스 같은 자치언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할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고질적인 의무와 책임이란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그 사이에 아슬아슬한 중간점은 없는 것이지. (웃음) 그나마 여태껏 발간한 석순 교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석순: 아,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참여한 23집이 기억에 남지요. 모두들 유독 고생하고 만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성폭력, 환경, 민족과 여성, 매체, 포르노 등에 대한 다양한 글이 있으니 보고 싶으신 분은 석순에 연락주시길 :)

줌이: 어이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번 질문은 줌이앙스와도 때려야 뚫 수 없는 항목인데요, 석순이 여성주의 매체로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석순: 석순은 2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또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석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고정된 지향점 같은 것은 구성원이 계속해서 바뀌는 현실에서 조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주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다소 광범위한 공통점이 있겠죠. 지금 석순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석순이 다양한 소수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급진적이고 정교한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사실 불가능한-을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차이 지점이나 여성주의 내부 비판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성찰적인 여성주의 매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줌이: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단지 여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의 시선을 석순이 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또한 여성주의 내부 비판도 두려움없이 성찰적으로 행해야 하구요. 줌이앙스의 고민지점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듯한 것 같습니다. 참, 줌이앙스 자주 보시죠? # @ 줌이앙스에 대해 날카로운 외부 평가 부탁드립니다.

석순: 줌이앙스는 1호부터 애독자입니다:) 줌이앙스는 석순과 차이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독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게 석순의 포지션이라면 줌이앙스의 대상 독자층은 좀 더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 독자-특히

성-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관점의 여성주의 매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주이쌍스에 실린 글들이 직접적인 여성주의적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해도, 밀바탕에 여성주의적 마인드가 깔린 글이라고 생각해요. 석순이 이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주이쌍스는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고 쓰는 글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몽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해도, 주이쌍스에 실린 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저는 좋아해요.

주이: 고맙습니다. :) 주이쌍스의 정치성에 대해서 주이쌍스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얘기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애 호를 낼 때마다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 조율하기가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석순은 발간하는 데 있어 힘이 든 점은 없나요?

석순: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또 그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책 한 권에 담아낸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적은 인원으로 글 검토 같은 일을 빠르게 하느라 오랜 기간 석순에 자기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개개인의 힘든 점 같아요.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사람들의 몰이해나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와 편견 등등 역시 힘든 부분이지요. 이번에는 석순실이 테라-문 부수고 컴퓨터를 훔쳐가고 방을 어지럽히는 등T.T-를 당한 사건도 있어서 분노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럽더군요. 그리고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더 많은 반응과 피드백으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이: 끝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듣고 싶어요.

석순: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거창해서 쑥스럽네요. '나'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것. 나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주의여야 한다는 것. 음음, 여성주의를 알아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내 언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주이: 끝이 아니었네요.^^ 주이쌍스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석순: 주이쌍스 친구들과 석순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고민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주이쌍스 만들어가길, 지켜볼게요.

★ 여성주의 매체라는 공통된 화두를 들고 서 있는 서로인 만큼 주이쌍스와 석순은 많은 점이 많았다. 그 둘의 우정이 언제나 변치 않길 기도하면서, 이번 인터뷰를 정리한다. **주이쌍스**



석순 21호



Comic Review

<어른의 문제> Ichiko IMA

달토끼

나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던진다면,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떠올린다. 무거움, 끈적함, 질척함. 그다지 유쾌한 느낌은 아니다.

'정상적인 가족' 각본은 강력하다. '정상적인 가족'의 각본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거실에 식탁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둘 정도가 그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는 작지만 간실한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가부장이며, 어머니는 집안일을 잘 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적이다. 자식들은 가끔 부모 속을 썩이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학교 공부에 전념한다. 그러나 이런 각본은 광고나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혈연관계 말고는 별 공통점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상대에게 맞추거나 혹은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서글픈 일이다. 다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정들을 떠올려 보면, 무겁고 끈적하고 질척하다. 이런 느낌,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무겁고 끈적한 정서 그 자체에 발이 묶이면, 생생한 정서만이 살아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숨기고픈, 솔직한 가족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려낸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마 이치코의 <어른의 문제>도 그런 만화다. 이마 이치코는 <백귀야행>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지만 귀신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주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어른의 문제>를 비롯해서, <키다리 아저씨의 행방> <낙원까지 조금만 더>와 같은 작품은 게이커플이라는 소재를 통해 연애와 가족 문제를 발달하게 다루는 만화다. 이마 이치코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나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잘 다루면서도 그 정서들에 발을 묶지 않는다. <백귀야행>의 귀신들은 원한이 풀리거나 세상과의 끈이 없어지면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어른의 문제>는 15년 전에 부모가 이혼한 하라시마 가족 이야기다. 나오토의 아버지는 15년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이 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인 유미코와 이혼한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좋아하며, 아버지 역시 실현할 때 마다 어머니에게 기댄다. 어느 날 꽃미남 보석 디자이너 예비 고로와 재혼을 선포하는 아버지. 예비 고로는 연인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금세 고민에 빠저서 집을 나가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버지는 연인 고로를 붙잡기 위해 전 부인 유미코와 아들 나오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오토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새 연인이 사는 아파트에 자주 찾아가고, 나오토는 "게이는 유전되는 건가?"라는 의식 때문에 머리털이 빠질 만큼 고민하며 살아왔고, 때문에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업사리 인정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예비 고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점차 생각을 바꾸게 된다. 한편 전 남편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유미코는 새로운 연애를 시도하고, 완벽한 엘리트지만 가정파탄에 직면한 예비 고로의 형 하치메와 사랑에 빠진다. 나오토는 어머니와 하치메의 결혼을 바라보며 "가족은 중식해가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언뜻 보기에 <어른의 문제>는 아버지와 고로가 게이커피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나오토와 유미코가 온갖 거짓말을 해대면서, 해프닝을 벌이는 요절복통 드라마다. 나오토와 유미코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 사정을 숨기기 위해 각자의 애인들에게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거듭될수록 하라시마 집안은 소위 '콩가루' 집안으로 변해간다. 여기에 예비 고로를 필두로 하라시마 집안 사람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인간들이다. 고로의 형 하지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완벽 사나이이다. 그는 게이인 동생을 무시하며 "너희가 허피나? 홀리스야?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이라니..." 라고 소아불인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내는 가솔하고, 딸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 요리 잘하는 고로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예비 집안의 여자들도 기가 막히는 인물들이다.

이마 이치코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해프닝을 연출하면서 가족들이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모자라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은 게이커피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어른의 문제>는 '악간' 모자라고, 괴상한 사람들이 서로 섞이는 비밀밥 같은 만화다. 이는 가벼운 유머의 범벅이 아니다. 고로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점차 상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나오토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의 누가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거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혼하는 등 '정상적인' 가족의 규범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드라마 같으면 당장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릴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집안 망하겠다는 식으로. 하지만 <어른의 문제>는 갈등을 인정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다. 물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이는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상대에게 상처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는 하지에의 말이 코믹하게 보여준다. 이 무표정한 딸은 자신의 이혼한 어머니가 하지에와 다시 만나는 데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애늬은이 같은 말을 던진다. 그래, 시간이 걸리지만 견딜 수 있다. 이혼한 후에도 15년 동안 전 남편에게 미련이 남았던 여성 유미코가 새롭게 연애할 상대를 찾는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진 것도 이 만화의 장점이다.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전 남편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무거움, 끈적함, 질척함. 이런 것들은 좋게 말해서 '정'이다. 물론 사실 없는 순수한 '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몸을 맞대고 살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상처를 주고받는 많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정'은 징글맞은 단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란 것은 전쟁과 근대화의 역사와 맞물려 그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다. 물론 나 싫으니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고 학교에 갔고 중산층이 되었다는 식이다. 나는 한국소설이나 영화에서 험사리 가족에서 벗어나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성곽처럼, 90년대 이후 '정'으로 포장된 가족의 고통을 해체하고 비극적인 역상들을 찾아내는 작품들이 등장했다는 것. 소설가 배수아의 <바람인형>이 대표적이다. 영화로 치면, 이수연 감독의 <4인용 식탁>이 되겠다.

사실 핵가족 모델이 처음부터 강고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가족 공동체 단위가 사회의 단위로서 인정받으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거기에 가족에 대한 규범이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강박시킨다. 그래서 <4인용 식탁>같은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도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나 자식을 던지는 어머니와 같은 가족의 외상을 전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가족이 공포로 재현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문제를 덮어두었다는 증거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른의 문제>처럼 가족의 갈등을 험사리 통합하지도 않고 부추기지도 않으면서 숨겨 있게 다루는 작품이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가족에게는 조금씩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여유가 생기는 것. 100%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유미쌍스**



Movie Review

'여섯 개의 시선' 을 바라보는 일곱 번째 시선

수시아

사실상 발화라는 것만큼 엄청난 권력을 지닌 것도 드물다. 우리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각해야 할 점은, 그 순간 우리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푸르디외의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에서 볼 때, 언어교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화자들은 자신의 불균등한 분배구조 속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발화내용 자체보다는 화자의 구조적 요인들이 발화내용과 맞물려 말하는 효과가 크다. 바로 언어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테크니컬한 능력이 아니라 화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언어화할 때 '정치적으로 올바르기(politically correct)'위해서는 파생된 권력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수순이다. 역사적으로 미(美)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집단은 그를 담론화할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미술작품에서 남성의 누드보다 여성의 누드가 훨씬 빈번하게 그려지고, 여성의 미에 대한 수많은 관심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권력관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상적인 미란 바로 권력을 가진 집단의 관점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는다.

반드시 권력을 가진 자만이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집단이 의도적으로 구조적인 소외를 당하게 된다면, 발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억압을 표면화하고 그 모순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발화와 그 극단에서 있는 자의 발화는 그 질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다. 발화만이 유일한 합법적 저항인 집단에게는 결코 온건한 발화만 있을 수 없다. 보다 사실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급진적으로 접근해야만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발화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은 대중영화치고는 드물게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다. 또한 여섯 명의 감독은 분명 발화 권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 때문인지, 그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는 방식은 현실을 치열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적이지 않고 보다 수법에 치중한 매너리즘적이다. 내용고도 다양한 수법으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제가 모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발화가 갖게 되는 치명적인 결함, 즉 애민하지 못한 주제 의식은 대중적인 시도와 세련된 기법으로 인해 포장된다.

<그녀의 무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자 실업계 고등학생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다. 임순례 감독은 그녀의 어느 작품들처럼 한바탕 웃으면서도 뒤끝이 씹힐만한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어느 상업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사실 이 나라에서 요구되는 외모 지상주의의 압축판일 따름이다. 비단 여자 실업계 고등학생들만이 사회에 적합한 여성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여자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그로부터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유예되었을 뿐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가 정한 사이즈와 이미지에 맞춰 스스로를 조각하거나 혹은 실패했을 경우 도태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면접시 유리해지기 위해 몸무게를 날마다 체크하고 생체수술을 하는 여고생들의 장면은,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것보다 피부 관리에 돈을 투자하라고 조언해주는 교수들 하의 여대생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 남자의 사정>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제는 감독이 '보호되지 못하는 인권이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범죄자의 인권을 다룬 영화이다. 제목에서 '사정(事情)'이란 말은 '일의 형편이나 그렇게 된 까닭'이라는 뜻에서의 사정이지만, 성범죄자를 오줌 싸는 아이와 동치시킨 작가의 빈곤한 상상력은 제목을 경자를 배출하는 의미로서의 '사정(射精)'으로도 읽히게 만든다. 즉, 그 남자의 사정(射精)은 아이의 생리적인 현상인 소변과 대략이 같아지고, 소금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아이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어른들의 질타와 비난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아이의 원관념이었던 성범죄자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종용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애초부터 성범죄자와 오줌 싸는 아이라는 비교상은 성립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오류를 망각하게 한다. 또한 인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세상에 너무도 다양한 인권들이 산재해 있고 그 다양한 인권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충돌한다. '보호되지 못하는 인권이란 존재하는가'에서 보여지는 문제의식과 같이 인권의 보장 여부라는 거친 발상이 아니다. 많은 경우 인권은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너무도 다양한 인권이 상충하게 되는 그 세밀한 충위를 살펴보는 관점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이다.

박찬욱 감독의 <밀거나 말거나; 환드라의 경우>는 길을 잃었다가 한국인과 너무도 유사한 외모 때문에 정신병을 앓는 한국인으로 오인되어 한국의 정신 병원에 장장 6년 4개월 동안 갇혀 있어야 했던 태를 출신 이주 노동자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다. 흔히 이주 노동자 하면 연상되는 한국인 고용자의 폭력과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을 이주 노동자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묘사된다. 이 영화는 '다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타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만 했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박진표 감독의 <신기한 영어나라>는 R말음을 잘 하기 위해 혀를 늘이는 수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극적인' 방식을 취하면서 적면한 문제에 대해 관객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공포심에 어필하려 든다. 여균 감독의 <대륙횡단>은 '다르다'는 이유로 <밀거나 말거나>와는 달리 오히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너무 '보호'하려 드는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한다. 박창수 감독의 <얼굴값>은 '얼굴이 이쁘면 마음씨도 고을 것이다' 류의 외모에 대한 지리한 고정관념을 호러라는 형식으로 꼬집고 있지만 경작 잘 읽히지는 않는다.

휴머니즘과 반전운동, 그리고 심지어 여성주의마저 트렌드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룬 이러한 영화는 자칫하면 키치(kitsch)가 되어 버릴 수 있는 발생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타인의 인권에 아예 무심하지는 않은 이상, 영화를 본 대다수의 관객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외된 인권들에 대해 잠시나마 고통을 공유하게 되고(영화를 본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에 관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학습해온 그 가지적 보편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봉쇄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단지 대중적인 인권 영화 한 편을 본 것만으로도 인권 신장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디 보다 설득적인 주제의식과 깊이 있는 전개과정이 선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류이쌍**



Book Review

냉정과 열정 사이

코코



사랑에 대한 소설을 두고 대부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마련이다. 사랑 나루행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멸을 사고, 어떤 사람들에게 집착의 대상이 된다. 유행에 맞추어 영화를 보고, O.S.T를 듣고 당연히 마련된 순서대로 책을 읽어들었다. 사랑 얘기가 읽고 싶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다. 일상에서 스며든 감정의 흐름 속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내일을 걸어가는 사람들, 만나고 싶었다. 지하철을 타고 무료함을 멎히나 견뎌야 하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앉아서, 가장 호사스럽기는 욕조에 에센스를 뿌리고 몸을 담그는 몇 시간을 사랑하면서 책을 읽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밀려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만년필처럼 잉크가 전하게 번지는 펜을 들고 줄을 긋고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려넣는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여기가 내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신비로운 과정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들어온다. 단지 좋다, 싫다, 싫다고 말하는 내게 질책을 가하고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법이라고, 지금의 감정은 이렇게 정리해 두어야 하는 법이라고 가르친다. 가장 정제되어 있었던 시간 속에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물에 거리감을 둔다는 것, 존재하는 나를 대상으로 두고 타인인 듯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흘러가지 않는 시간을 잡아 이끌고 가려는 시도,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끊임없이 자각함으로써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자의 의무다. 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적어도 타겟만큼이라도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다. 아오이와 준세이는 온 세계를 한 사람에게 용촉시키는 사랑을 하고, 열정이 남은 폭풍 속에서 헤엄친다. 서로를 잊은 듯, 그러나 후회하면서 10년을 건너와 맞는 필연적인 재회. 그리고 돌아오고야 말았다고 속삭이기.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만난다는, 행복한 이야기다. 나는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따뜻한 발발과 호박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겐 안도감을 주는 것들만 택할 권리가 있다. 원한다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보상받지 못하는 결말이 싫다.

그러나 사랑이 이벤트가 아니라서 가슴에 녹아들 듯이, 연애소설에는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사람이 자라는 과정, 고통받지는 것도 자라는 것이라면, 혁명이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다는 식의 이야기들과 다르다. '끝'이라고 외치고 책을 덮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다. 글을 산만하게 읽는 습관은 이렇게 생긴다. 나는 주제를 찾는 데 서둘러. 서평을 쓰겠노라 말해놓고서 무엇을 써야할지 몰라 책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 적고 어쩔 줄 몰라한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책을 읽지 않았어도 좋을 자신의 얘기만 결렬하게 늘어놓아서는 안되는데, 이사람 저사람의 속을 뒤적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이를 중심으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식. 하드커버를 넘기고, 주황색지에 언제 어디서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왔는지 적어 놓고,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언제 어디서 이 책을 읽었는지 써넣는다. 또 한가지, <냉정과 열정사이 rosso>의 앞에 '마빈에게 일등을 주겠어' 라고 적었다. 마빈이 등장하는 페이지에 별표를 그려 놓고, 마빈의 대사에 줄을 그어놓은 '나의' 냉정과 열정사이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몇 번의 가을을 맞으면서, 어떤 이야기에서도 해피엔딩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꼭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지 못하는 중독 때문에 선택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하기가 싫다. 그저 열심히 하면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보함에 들고 싶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남겨서도 안된다. 혹은 치명적이지 않도록, 즐거운 아쉬움만 남겨야 한다. 냉정은, 상처를 남기고 중단된 열정을 잃어 아오이를 세련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냉정한 현실의 자각 속에서도, 나의 레조로라고 상냥하게 끌어당겨 안아주던 마빈이 준세이를 대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일대의 사건이,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준세이의 후회와 아오이의 상처가 그들을 다시 한곳으로 불러들였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속 밖에 없다는 예기, 실사 밀는다고 해도, 그 자리가 그곳이었던 이유는, 세련된 냉정함을 갖기 이전에, 그들이 끝내지 못한 예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움직이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할, 무너진 곳을 복원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서로에게 돌아가기라니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상처는 모양새와 발음이 날카롭다. 위태롭다. 상처, 라고 말해놓고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한다. 그전에 속이 뜨겁 무뎠었다. 상처는 나를 멈추어 놓았다. 끝이라고 외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서성거리려 했다. 상처를 가장하려고 한 때가 있었다. 경계하고 거리를 두면서, 무절하고 냉정한 눈으로 관망하며, 마치 밀라노의 아오이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코웃음 나는 열기를 가졌던 때. 마음만 먹고 그런 척 하는 것으로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때.

마이크 소리와 마임을 하는 민중가요의 소리가 학교를 채우던 계절에, 가장함과 진실함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미안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공방 앓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냉큼 말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상처를 안으로 돌려놓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바탕 퍼부어 주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발을 여는 나의 손이 낯설어졌다. 내 발이 지탱하는 땅의 무게를, 10년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듯 쓸쓸하게, 경작 쓸쓸할 이유도 없이 정리하면서 자꾸만 걸어가고 있는 나는 한심하기만 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후회와 용서는 두 방향으로 흐른다. 자신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아오이를 원하는 준세이. 뒤늦게



라도 용서를 받으면, 후회만으로 살아온 자신의 10년이 복원되더라도 할 양. 아오이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10년 후 무오모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지켰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아오이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질 것처럼. '아오이가 오지 않아도 나는 무너져 버린 나를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시키고 당당히 내려올 것이다.' 두오모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그렇게 되뇌이지 않았다. 아오이의 '이미 몇 년 전에 고갈되어 버린 후회'가 관계를 향해있었던 것에 반해, 준세이는 자신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이제 그만 후회해도 되는거지, 아오이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과거를 맴돈다. 준세이가 싫다.

소리지르며 떠나지 말라는 메미를 보면서, '고뇌하는 인간은 늘 이렇게 아름답다'는 감상이나 내뿜고 있는 사람.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뇌하는 것이 아니다. 고뇌와 슬픔과 아픔의 원인인 준세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한 사람의 시간을 정지시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폭력을 휘두르고서, 또 다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소리를. 준세이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준세이는 달았다. 나와 당신과, 그는 관계 맺기에 서둘러 아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데 빠진 것뿐이다. 아무도 저지르지 않는 잘못을 혼자만 저질러 버린 것도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편찮아, 누군가 술자리에서 피로움을 털어놓았다면 나는 필시 어깨를 토닥이며 그렇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이 너를 기다린다면, 하아, 하고 한숨을 쉰 뒤, 너의 좋은 점이 그런 잘못을 덮어줄 만큼 그/그녀를 감동시켰을 거라고, 어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했겠지. 그렇지만, 나는 준세이의 편이 아니다. 진심이라거나, 사실은 이라거나, 그래도 라거나 하는 말들은 정당화에 불과하다. 어려서, 몰라서 상처입히는 행동을 했다는 변명은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 고작 22년을 살아온 내가 그나마 분명하게 알게 된 것들의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가.

10년을 뛰어넘어 가버린 아오이와 준세이에 대한 불만을, 그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다만 말해주었으면 하는 것뿐이구나' 하는 마빈에 대한 안타까움을 열을 내며 쏟아붓는 내게, 누군가는 웃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나중에, 언제? 준세이와 아오이가 다시 10년 뒤 메미와 마빈에게 용서를 구하러 달려갈 때? 남은 것은 조용히 조용히 하루를 놀러담아 시간을 보내던 아오이의 모습. '내 주위에만 시간이 정체되어 있다' 던 입을 열어, 흐르게 된 시간을 안고 냄새나 날씨가 꽃에 대한 묘사로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열심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어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체된 시간이란 끔찍하다. **쥬이왕스**



날아가 버릴 지도 몰라 - '벚꽃 지다' 에서의 말로malo

drybaby

벚꽃지다

꽃잎 날리네 햇살 속으로
한 세상 지네 슬픔 날리네
눈부신 날들 가네
잠시 머물다 가네
꽃그늘 아래 맑은 웃음들
모두 어디로 갔나
바람 손 잡고
꽃잎 날리네
오지 못할 날들이 가네
바람길 따라 꽃잎 날리네
눈부신 슬픔들이 지네



언제였던가 꽃피던 날이
한 나절 웃다 고개 들어보니
눈부신 꽃잎 날려
잠시 빛나다 지네
꽃보다 아름다운 얼굴들
모두 어디로 갔나
바람 손 잡고
꽃잎 날리네
오지 못할 날들이 가네
바람길 따라 꽃잎 날리네
눈부신 슬픔들이 지네

이주엽 사, 말로 곡 - malo3

어제도 늦은 밤에 조용히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못지 않고 잠이 들어버렸다. 정해진 시간에 몸을 일으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아서 내내 신기하다고 중얼거리며 거리를 나서는데 이 초겨울의 아침은 따뜻한 히터가 흘러나오는 한산한 지하철도의 시간이다. 사선으로 쏘아져 들어와 바닥에 누운 둥근한 햇볕과, 아프게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들과, 곧 떨어질 낙엽들의 선명한 색깔이 확실히 스쳐지나가는 오전10시의 2호선은 아무 자극이나 충격도 없이 내 마음에 익숙한 파동을 그렸다. 혹 없었더라도 소리를 내어 울거나 머리를 형형이어버리거나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슬픔을 습습을 만만 그런 류의 것이다. 아니, 나는 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게서, 아직은 아무것도 떠나간 적이 없으므로.

그녀를 만난 건 어느 사이트의 음반 소개 코너였을 것이다. 아니, 아주 오래 전 길을 걷다 멈춰선 어느 커피숍 앞의 '오늘의 공연' 게시판이었을지도 모른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앞에서 혼자 빙글 돌아서서 봤던 티브이에서 그녀를 만났을 지도 모르겠다. 혹은 누군가를 따라 도착한

알 수 없는 무대에서 착각 감기는 스캔을 보여주던 그녀가 바로 말로malo였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가장 사랑받는 여성재즈보컬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파트너의 노랫말에 누구도 쓸쓸한 멜로디와 아득한 리듬을 입혀 부르는 여성 뮤지션이다. 우리가 언제 만났었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러나 처음으로 앨범을 손에 쥐어 들었을 때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만큼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삭 말라 벗겨지는 목소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색이었다. 낡은 건물의 계단에 꾸고 앉아서 있으면 꼭 손으로 만져보게 되던 레인트 컵대기 같은 태도를 가진 목소리였다. 어린 나는 까슬한 그것들을 때려내서 던지며 놀곤 했다. 오렌지색 색연필을 습관처럼 씹아대며 나무향기를 달곤 했던 아이는 이내 그녀의 목소리에서 씹아놓은 나무 부스러기의 향기가 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부주의하게 넘기는 책장 한 번에 꼭 날리고 말 것이다. -혹은 벚꽃들. 한 번에 분말로 된 폭죽처럼 꼭 피어났다가 또 어느 순간 미풍에 어지럽게 날려 눈길을 끌고 이내 땅에 소복이 쌓여온 하는, 당연한. 그녀는 파트너와 교감하며,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이든 조용히 읊조려야 한다는 것을. 호느껴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돼, 들릴 듯 말 듯 한 리듬이, 낮게 깔리는 하모니가 울조리는 그녀의 입술로 타고 오면 노래가 시작된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하면 '여자가수'들은 음악적인 소양이 없다고 힐난하는 남성 대중음악 비평가들의 눈에, 말로는 자신의 작품을 꼭 던지고 갔다. 비평가들은 호들갑을 떨며 찬사를 보냈지만, 그녀는 이미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있다. 당연히 그러고 그녀는 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한 힘을 평탄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찾아 끄적 끄적 써는 사람이다. 음악공부를 하고 돌아와 낸 1집과 2집 두 장의 앨범 모두 빛을 보지 못했던 경험을 말해주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려면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인생의 면면들을 소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있기에 그녀의 음악은 섬세하고, 무엇보다도 가사와 깊이 교감한다. 악기들의 소리에 화답하여 자리를 건너며 내는 그윽한 바이브레이션에 스민 여유와, 내면의 울림과 그대로 직면해서 자신의 전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집중력과, 굳건히 서서 내지를 수 있는 폭발력이다. 바로 그녀의 힘이다.



-음악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은 있으셨나요?
-아니 삶을 포기하지 음악을 왜 포기해, 사는 게 힘들죠. 음악은 안 힘들어요. 음악이 돈이 안 되고 하루 공연비 뭐 5만원 받아서 음반 내고 살아야 되고 그런 건 물론 힘들지만... 음악은 언제나 기쁨, 내가 못 따라갈 뿐이에요. 음악은 어떤애들이 필요할 때 왜 막 부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좋아요. 자꾸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어제 깨 다시 고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또 지나가고 하고 또 지나가고 그 순간에는 단 3분 동안에도 절정이 있어요.
(인터뷰 출처 www.ddanzi.com)

노래가 흘러나오고, 벚꽃이 지면 세상과 웃음과 슬픔과 얼굴이 진다. 달려있는 것, 흔들리는 것, 흩날리는 것은 온통 추억이다. 반짝이며 복싱거리는 여러 개의 시간은 어지럽게 날린다. 불안정하고 잡피를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도리어 전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난다. 해가 지고 있었다. 표정이 벚꽃을 볼 때와 똑같았다. 약간 쓸쓸한 듯도, 아니면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었던 지도 모른다. 달을 걸어 보기도 전에 나는 내려야만 했다. 바람이 최 불어 옷자락이 펄럭거렸다. 보려하지 않았던 소용돌이치는 것들이 손을 흔들며 나에게서 떠나갔고 시간과 공간과 흔들림만이 내 안으로 스며 들어왔다. **쥬이썩스**



Cartoon

할머니 이야기

Dnool



Cartoon



쥬이쌍스의 07호 편집후기

수시아

정신없이 지나간 흔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으아아악 소리질러 머리가 핑글어진 다음에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해놓았는지 보게 되었다.

아생싸까지

자체 편집은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다. 연극 보러 오시오. 아아. 죽겠다.

모래알

콜록대는 사이 겨울이 왔다. 매마른 겨울이다. 바싹바싹 말라간다. 마를수록 흠여져가는 것에는 안과 밖이 따로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비오는 날의 축축함은 실은 것이다. 콜록콜록.

drybaby

이젠 좀 겁이 난다. 착각을 먹고살던 습관을 버리려 하는 것이 힘들다. 황량한 real-world에 발 딛고 서자, 찰싹찰싹 뺨을 때리는 유독한 겨울공기. 푸르게 서는 혈관에 흐르는 열락.

드놀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현재가 질곡스러우면 다음은 관습아질거라고 나와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궁극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라구- 하하-

sakana

정신없던 나날들이 종강과 함께, 쥬이쌍스 배포와 함께 가려나. 네 안 스물도 가려나.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네. 좀. 심플한 2004년을 기대하련다.

썸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반가워요.

코코

겨울이 와서 다행이다. 겨울에는 코가 얼얼하고 냄새를 맡지 않아도 좋다. 안녕.

살아보자

힘든 한 달이었다. 네가 보고 싶었어.

무심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설명이 부족한 곳에는 기꺼이 자기 상상력을 동원하곤 하는 이 사랑스런 여자들.



사랑스러운 쥬이쌍스 후원회원들

능구렁이, 감자, 황재, 이철민, 박찬성, 이해원, 이선민, 송실대 총여, 신우, 한승환, 석순, 류재현, 정창현, 소운, 이건호, 이스트, 안승혁, 신겨, 박다인, 외눈박이, 최은영, 서지훈, 이황효성, 김영미, 엄지연, 강동호, 뽕뽕, 다말, 신윤정, 이만경, 김예지, 김희영, 지화자, 강운소, 심현진, 김유정, 이성민, 김예진, 묵송원, 설설훈, 노연희, 라온정, 김유진, 박한, 한민정, 양새아, 이소연, 차영래

-이름이 빠지거나 후원회원이 되신 지 1년이 넘으신 분은 다시 연락주세요-

쥬이쌍스 웹을 찾아주세요

★ 쥬이쌍스의 홈페이지 www.jouissance.pe.kr에서는 종이매체와는 다르게 여성주의 행사와 기획, 문화 비평, 보도 등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많이많이 들어와주세요! 쥬이쌍스의 지난 글들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는 각월로 발간되는 종이 매체입니다. 쥬이쌍스를 집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쥬이쌍스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각월로 발간되는 쥬이쌍스를 보내드리고 쥬이쌍스 행사 때마다 마련되는 각종 책이나 인쇄물, 시디를 드립니다.

다음 계좌로 1만원을 입금해주시면 1년간 후원회원 자격을 받게 되며 발간되는 쥬이쌍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비를 입금하시는 분은 쥬이쌍스 게시판이나 jouissance@jinbo.net으로 입금했다는 것과 이름, 주소들을 알려주세요.

입금계좌: 농협 079-02-866033 예금주 김은미

★ 후원회비는 다음 호 쥬이쌍스를 만드는데 사용된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요!





web: <http://www.jouissance.pe.kr>

e-mail: jouissance@jinbo.net

만든 사람들

편집장: 아생싸가지, 수시아

편집위원: drybaby, sakana, 썸, 무심, 오래알, 드놀, 살아보자, 코코

표지그림: 드놀

외부필자: 달토끼

편집: 아생싸가지

웹 작업: 수시아, 드놀

펴낸 곳: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Jouissance 편집 위원회

주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28동 201호

★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인쇄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백만 개의 키스를!